

북클럽 운영보고서 - 1주차

북클럽 팀명	수료일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 년 10 월 11 일(화요일) / 장 소 : 한울회 동아리방							
참석자 명단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p data-bbox="183 1310 478 1400">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 data-bbox="507 678 1388 840">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책에 있었던 에피소드 중 인상 깊은 이야기를 풀어가며 서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각자의 죽음은 어떠했으면 좋을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p> <p data-bbox="507 891 1005 925">■ 책을 읽기 전 죽음에 관한 나의 생각</p> <p data-bbox="507 976 614 1010">남○현 :</p> <p data-bbox="507 1021 1388 1261">어렸을 적부터 나에게 ‘죽음’은 가까이에 있는 존재였다. 고양이, 토끼, 금붕어 등 다양한 동물들을 키워보았던 나는 가족과도 같은 애완동물들의 죽음들을 내 곁에서 맞이하였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직접 죽음을 눈앞에서 겪었을 때에는 정말 무섭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마음이 컸다. 그래서 나에게 죽음이란 무겁고, 어두운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였다.</p> <p data-bbox="507 1272 1388 1433">하지만 점점 해가 거듭되며 성장해 갈수록 다양한 방면의 죽음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다. 항상 떠나보내는 입장이었던 나에게서는 경험해볼 수 없는, 즉 떠나는 입장의 죽음은 어떠할지 대하여 어찌면 죽음이란, 새로운 시작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게 되었다.</p> <p data-bbox="507 1485 614 1518">김○은 :</p> <p data-bbox="507 1529 1388 1904">책을 읽기 전, 불과 몇 일 전 문상을 다녀왔다. 친한 언니오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23살, 25살 나와 크게 나이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벌써 어머니를 잃었다. 향을 키고 절을 하고 언니를 안아주는데 작은 몸이 어찌나 떨리던지 정말 어떡해 라는 말 밖에 나오지 않았다 비록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은 하늘에서 숨 쉬고 살았는데 이젠 그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만약 나에게 엄마가 없다면 얼마나 큰 슬픔에 잠기게 될까. 죽음이란 삶의 반대말이라고 하던데 그 차이는 숨 한 결의 차이였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나에게 온 작은 인연이라도 가볍지 않게 생각할 것임을 느꼈다.</p>							

박○현 :

과거를 보면 주변 사람의 죽음으로 장례식을 방문하는 것 외에는 볼 수 있는 경우가 흔치 않다. 이런 이유로 죽음이 주변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렵고, 장례식장의 사람들 표정을 볼 때 슬픔과 우울을 기본 감정이 라고 생각했다. 이후 시간이 흐름으로서 영화와 같은 미디어를 보며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사후 세계,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죽음은 주변에 있으며 이전에 암울한 감정보다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윤 :

지금까지 그리 오래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친척이든 뉴스에서 접한 일이든 다양한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관련 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삶과 죽음은 한 꺾 차이라는 말이 있지만, 나에게 삶과 죽음은 어쩌면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는 사람의 삶과 죽음은 공존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삶을 살아가며 다양한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삶과 죽음은 공존한다고 생각한다.

김○연 :

죽음이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할 수는 없지만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못한 자로는 나뉠 수 있는 것 같다. 원치 않은 사고나 타인에 의해 죽음을 당한 자와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고 죽음을 행한 자인 것이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예상치 못한 살해 등으로 죽음을 선택하지 못한 이들의 삶이 타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안타깝다. 살인자와 자살자는 누군가(나)를 죽음으로서 한 생명을 없애는 것을 선택했다는 점과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살인자는 타인의 목숨을 선택한 것이고 자살자는 자신의 목숨을 선택한 것이지만 살인자의 희생양과 자살자의 주변인이 큰 고통을 받았음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둘을 동일선상으로 두었다.

■ 죽음에 관하여 1권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남○현 :

5화의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 중 단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하고 죽은 남성의 죽음을 다룬 화가 가장 인상 깊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좋아하는 일을 각자의 직업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돈을 좇아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사람들의 삶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나타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신이 무엇을 가장 잘 하고 좋아하는 일인지 알면서도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일을, 그것도 매일 똑같은 일상에 갇혀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결국 이번화의 주인공은 신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나가며 끝이 났다. 이번화의 주인공이 기회가 없는 채로 죽음을 맞이하였다면 삶이 끝이 난 후에

밀려오는 후회는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고 오직 나만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나타냈던 것 같고, 나는 이것이 진정 현실이라는 것이 안타까웠다. 나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며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준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김○은 :

9화의 '죽음은 그리 멀지 않아. 어렵지도 쉽지도 않고, 그냥 있는거지. (생략)그치만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할건 현실이란 거야. 부정적, 긍정적 을 떠나 그냥 있다는 사실 말야.'라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며칠 전 겪은 죽음도 그러했다. 받아들일 수 있건 없건 죽음은 현실이다.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조차도 현실일 뿐이다. 항상 곁에 있지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 인간은 그런 불확실함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 같다. 숨을 쉬고 있을 때 하나라도 바꿔볼 것. 그것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다.

박○현 :

사람들의 희생정신과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5.5 화에서는 내가 다른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만한 희생정신이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고민을 한 결과 목숨을 걸 만큼의 희생정신은 없다는 대답이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 희생정신을 더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나의 목숨은 중요하고 삶과 죽음에 길에서 죽음이라는 길을 선택할 용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희생을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의 인간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우정을 깊게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이○윤 :

7화에서 술에 잔뜩 취한 남성이 귀가하던 길에 길고양이를 보고 괜히 흥분해서 차길로 뛰어든다. 그리고 그 길을 운전하며 지나던 여성은 깜짝 놀란다. 이 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신을 만난다. 자신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두 사람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데 길에 뛰어든 취객은 그 운전자 때문에 자신이 죽었냐며 소리를 지른다. 여성을 조용히 눈물을 흘리다 죽음을 택한다. 다시 현실로 장면이 바뀌고 사고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 운전자는 핸들을 틀어 가로등과 부딪히고 사망했다. 취객은 그제야 자신이 부끄러운 행동을 했음을 깨닫고 사망한 운전자 근처에 앉아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다.

이번 화를 보고는 죽음은 착한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는 조금 화도 났다가 결국 취객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운전자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기도 하다. 이 내용을 보고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그래서 인상 깊었다.

김○연 :

2화와 10화에 나오는 행복한 남편과 아내를 집에 침입하여 살해한 살인자와 두 아들을 두고 자살하려한 자살자의 에피소드가 인상 깊었다. 살인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희생양이 되어 그들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대로 겪어보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역시 사람은 역지사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며 끝까지 반성하다 사형당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작중시대는 사형제도 존재). 자살자의 경우 신이 자신으로 인해 고통 받은 사람들의 수만큼 충알을 장전하여 총을 쏘면 그 사람들의 고통만큼 아픔이 느껴진다고 하였는데 그게 두 아들의 고통이었다는 점이 주변인이 느낄 감정에 대해 잘 설명했다고 느껴졌다. 본인의 아픔만큼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까운 사람들의 아픔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게 죽음인 것이구나 싶었다.

■ 죽음에 관하여 2권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남○현 :

19화의 남들의 시선을 생각하는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았다. 나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자주 보고 눈치를 자주 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공감이 되는 내용인 것 같다. 내가 보는 시선, 즉 나의 삶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주인공인 삶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맞춰가는 것이 제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의 퍼즐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책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죽음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이 신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후회와 반성 혹은 미련 없이 털어내는 장면들을 담아내었다. 과연 내가 삶의 끝자락을 맞이하였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하나? 라는 질문에 나는 나의 세상에는 나밖에 없으며, 결국 타인의 시선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일깨워주며 나의 시점에서 돌아가는 삶이 가장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김○연 :

20.5화의 소방관의 에피소드가 인상 깊었다. 죽음의 이유가 다른 사람을 살리다가 죽은 것도 감명 깊었지만 죽고 난 이후에도 끝까지 한 화재 속에서 물건인지 사람인지 모를 것을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생명을 저버린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마음에 품고 다녔다는 것이 생명을 지키려는 것에 대한 사명감까지 느껴져서 좋았다.

김○은 :

20화의 주인공은 '전 저에게 엄격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남들에게 관대할 수 있으니까.'예전의 나도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나 자신에겐 엄격하지만 남들에게는 포용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어른이고 멋있어 보였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엄격할수록 피해해져갔고 나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래서 요즘은 '나도 인간이고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하려고 한다. 잘못했을 땐 잘못을 바로잡을 반성이 필요하지만 그 반성 뒤에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 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잘하면 된다고 나 스스로를 다독인다. 덕분에 정신이 건강해졌고 전보다는

더 용기를 가지고 무엇이든 도전할 마음이 생겼다. 죽기 전 나를 사랑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아마 나 자신을 누구보다 이해해주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현 :

17화는 현대사회를 보여주는 에피소드 라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에서 과로로 인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를 버티지 못해 자살 및 사망하는 경우 또한 뉴스를 통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나 또한 여유 있는 삶보다 바쁜 생활을 선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인상 깊게 봤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내가 널 도와주기 위해 눈치 못 채게 가서 말렸다고 생각해봐. 동료, 혹은 친구, 가족, 이웃사람, 의사일수도 있겠지. 너는 그 사람 말을 듣고 계획을 바꾸었을까? 아니면 네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까?”라는 대사에서 큰 인상을 남는다.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의 생각이 옳고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고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이 이유이다. 하지만 위의 대사의 질문과 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보다 이 사람이 나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파악하고 나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윤 :

17.5화와 18화는 내용이 연결된다. 이 에피소드가 인상 깊었던 이유는 생각하지 못했던 구성이고 이 구성이 주는 분위기가 좋아서이다. 이 두 개의 화는 병상에 누워 죽음을 맞이하는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진다. 17.5화에서는 할아버지가 무언가 말하는 듯 말풍선은 있지만 단 한마디의 대사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빈 말풍선들은 18화에서 신과의 대화로 채워진다. 이 구성이 죽음을 앞둔 노인의 상황을 가장 잘 그려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이 이 노인에게 자신의 아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을 주었다는 것이 마음 아프게 느껴졌다. 만화라서 그렇게 신이라는 존재를 만나고 대화를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자신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

남○현 :

장례식은 고인을 배웅하기 위한 문화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만약 죽음을 맞이하여 장례를 치르게 된다면 눈물로 얼룩진 장례식 보다는 웃으며 보내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만남이 끝난 후에는 항상 ‘잘 가, 다음에 또 보자’라고 인사하여 여운을 남기는 것과 같이 웃으며 나를 위해 장례식에 와준 모든 이들이 나의 마지막에 웃으며 인사해주는 죽음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박○현 :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던 부분이 인간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이다.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가 아닌 다양한 관계를 만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또한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내 주변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이 사람들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죽을 때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이런 질문을 통해 이번 삶에서 무슨 삶을 살아왔으며, 반성할 것은 어떤 것이 있고 칭찬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 성찰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김○은 :

삶과 죽음은 공통된 부분이 있는, 수학적으로 교집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느껴졌다. 죽음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받아들일 자세를 가져야 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나도 사람처럼 죽고 싶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논문에 내 이름 석자 실고 죽고 싶다. 이상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살아온 인생을 혼자 생각하며 죽고 싶다. 내 죽음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주제는 죽음이지만 죽음보다는 현실 사회를 반성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이○윤 :

사실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 책에 담긴 수많은 죽음을 보며 죽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은 사고를 당하거나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스스로 선택하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죽음을 맞이한다. 만약 내가 나의 죽음을 택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있는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

김○연 :

나는 고등학생 시절부터의 꿈으로 오래살고 싶었다. 100살까지 살아서 나의 100살 생일날 나에게 직접 죽음을 생일선물로 주고 싶다. 그때쯤이면 나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것 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생일날 죽음을 선물한다는 것이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다.

활동사진	
------	--

2022년 10월 11일

참가자대표 : 남○현

북클럽 운영보고서 - 2주차

북클럽 팀명	수료일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 년 10 월 19 일(수요일) / 장 소 : 한울회 동아리방						
참석자 명단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영화 ‘코코’를 시청 후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 고인의 넋을 기리는 문화의 차이점과 죽은 후 사후세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p> <p>김○은 :</p> <p>영화 가장 초반 '잠시 기타 좀 빌릴게요', 영화의 성장을 아울러 주는 시작이다. 기타 인생 외길을 살아왔을 고인의 기타를 통해 사후세계를 경험한다. 기타가 매개체가 되어 가족애, 내면의 성장을 이루었다. 타인의 삶을 빌려 성장을 이룬다는 부분에서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기린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멕시코 배경의 코코 중 사후세계와 한국영화의 사후세계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총 3편으로 구성된 '신과 함께'는 코코와 비슷하게 고인의 사후세계를 그린다. 고인은 총 7개의 지옥을 거치며 생전 살았을 때의 죄를 묻고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후세계는 생전 살았을 때의 죄를 묻고 환생 또는 벌로 나뉜다는 부분에서 고전적이고 구시대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가 전하고 싶은 말이다. 중국이나 일본은 집에 재단을 모셔 죽은 사람의 날을 특별하게 기리는 문화보다 항상 일상생활에서도 곁에 있는 것처럼 지내기 때문에 제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나라처럼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의 제사와 다른 나라의 제사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었다. 중간 부분 해골이 기억되지 못해 골목을 떠돌다가 사라지는 부분과 마지막 고조할머니가 고인을 기억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 누군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정말 사라진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p> <p>박○현 :</p> <p>우리나라와 “코코”에서 본 멕시코의 공통점은 제사를 지낸다는 부분이다.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보낸다. 이 부분에서 영화를 볼 때 살아있는 사람 중에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때, 사후세계에서 사라진다는 영화 설정이 신선하고 인상이 깊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에서는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이를 효율의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활용되는 비용이 많고, 노동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볼 때, 굳이 있어야 하는 문화이며 강요되어야 하는 문화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차이점을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의 사후 세계 같은 경우에는 살아가면서 있었던 죄를 벌하고, 죄가 없다면 다시 환생 할 수 있는 기회를 준</p>						

다. 하지만 “코코”에서 볼 수 있는 멕시코의 사후세계는 음악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다고 생각한다. 사후세계에서 공연을 중심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전 유명했던 가수의 경우 이 세계에서조차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 죽음을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한다.

남○현 :

제사 문화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조상신’을 모시는 문화가 뿌리 깊숙하게 내려와 있다. 제사음식이 따로 있을 정도로 제사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반면에 멕시코에서는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 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죽은 자들을 기리는 축제를 진행한다. 죽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멕시코의 문화를 보고 우리나라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후세계는 종교에 따라 각자 다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후세계는 죄를 지은 자는 지옥에 가며, 착하게 살아왔다면 천국에 간다는 큰 틀은 비슷하다. 멕시코에서 고인은 망자의 세계에서 머물며, 죽은 자들의 날에 후손들이 차려놓은 성묘 음식을 먹으며 즐긴다. 그러나 멕시코에서의 망자에게도 끝은 존재하였다. 이승에서 기억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은 망자는 결국 망자의 세계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여 소멸하게 된다. 나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지만, 만약 존재한다면 아무래도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재판을 받으며 생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물으며 벌을 받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후세계에 대한 표현보다 멕시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후세계가 훨씬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제 2의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노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멕시코에서 의미하는 제 2의 인생은 사후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다. 영화를 시청하며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사후세계와 제사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는 다른 학우 분들의 말이 공감되었다.

이○윤 :

우선 시각적으로는 영화의 색감이 굉장히 예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그려지는 사후세계는 어둡고 차가운 분위기인데 멕시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는 사후세계가 굉장히 밝고 붉은 색이나 노란색 등 따듯한 색감이 많이 쓰여서 훨씬 화사하고 따듯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사후세계를 그려낸 대표작인 ‘신과 함께’라는 영화 역시 지옥이라는 공간이 나오고 주인공을 심판하고 있다는 점이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다른 문화적 가치관이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인상 깊었던 내용은 현재를 즐기라는 seize the moment 라는 대사가 자주 나온 것인데 이 대사가 주인공인 미구엘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 네가 즐거움을 느끼는 일과 네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인상 깊었다. 또한 제사라는 주제를 지루하지 않게 풀어낸 영화라고 생각한다.

한국 제사 문화와 멕시코 제사 문화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살아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고인을 기억한다는 의미는 같았지만 이를 기리는 방향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현재는 많이 변화했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제사문화는 여전히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조용히 진행된다. 이와 달리 영화에서 그려진 제사문화는 고인이 생전 좋아했던 음식이나 물건 등을 제대에 올리고 고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꽃잎을 깔아 길을 만든다. 또한, 마을 분위기 역시 행사를 진행하며 들떠있는 분위기이다. 이를 통해 느낀 것은 결국, 두 한국과 멕시코는 모두 고인을 기리기 위해 제사라는 형식을 선택했지만 그 방법과 특징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김○연 :

“하지 말라”는 가족들 사이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음악을 하기 위해 대회에 나가려고 하고 기타를 얻기 위해 죽은 자의 물건을 훔치기까지 하는 코코의 열정을 보여 준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망이 실천력과 이어져 결국 음악을 얻게 되는 의지에 대한 희망을 준 영화라고 생각한다. 영화 속 코코가 지옥을 갔을 때 만난 고조할아버지에게서 아무도 기억해내지 않았다는 서러움이 느껴졌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을 보니 자아성찰을 하게 되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만일 나를 기억하는 이가 없다면 너무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나부터 누군가의 죽음을 겪는다면 그들을 꼭 기억하고자 한다. 죽은 자는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않는다면 죽어서도 불행할 것이고 그렇기에 죽은 자를 기리는 행위는 필요하다고 이해되었다.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고조할아버지를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증조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만든 곡을 직접 불러내는 모습이 있다. 죽은 이를 누군가와 함께 경험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극 중 코코가 톨모델로서 좋아하던 가수의 명언이 ‘Take come true’ 라는 말로 코코가 음악을 계속하고자하는 원동력이 되는 말이다. 하지만 실제 할아버지의 곡을 훔쳐 성공을 이뤄낸 것으로 좀 다르게 보였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성공의 기회를 잡아야만 하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멕시코는 죽음에 대해 부정적이기 보다 죽은 자들의 밤이라고 하는 일종의 축제로서 제사문화를 즐기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조상들에 대한 예의를 중시하는 분위기로 엄숙하고 진중하다. 우리나라의 각 집마다의 제사는 조상에게 감사함을 전달하고 앞으로의 앞길을 부탁한다는 일종의 소원이 담긴 형식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전체에서 왕들의 제사를 진행할 때도 있는데 이땐 음악가와 가마꾼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단합하여 조상을 기리기도 한다. 이처럼 마냥 어둡지 않은 제사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나라의 제사는 보통 고부갈등 때문인지 부정적으로 생각된다. 코코에서 보이는 멕시코의 제사 문화는 각 집에서도 가족들이 모여 죽은 가족까지 불러내어 축제라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니 우리나라도 각 집에서 힘들게 제사를 지낸다고 보다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분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활동사진

2022년 10월 19일

참가자대표 : 남○현

북클럽 운영보고서 - 3주차

북클럽 팀명	수료일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 년 11 월 2 일(수요일) / 장 소 : 한울회 동아리방						
참석자 명단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책 제목 : 나는 친절할 죽음을 원한다 (1장부터 3장까지)</p> <p>■ 질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p> <p>남○현 :</p> <p>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는 암이라는 질병이다. 과거에는 암이라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병원을 가도 암이라는 질병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현재는 암은 고칠 수도 있는 질병이 되었다. 나는 현재의 의학기술도,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할 의학기술도 모두 지지하는 편이다. 다친 사람들은 회복의 수준이 원만히 빨라졌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치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을 읽기 전의 나는 의학기술의 발달의 긍정적인 측면만 알았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동전도 앞뒷면이 있듯 이번에 책을 읽고 나서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내용을 꼽으라 한다면 의학기술의 발달로 생긴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다.</p> <p>우리나라의 의학기술이 발달하며 인간의 수명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명치료가 가능하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병원에 제공되자 대부분이 생을 병원에서 마무리 짓게 되었다. 병원은 임종실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 만큼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장소이다. 숨이 멎기 직전까지 병원에서 하고 싶은 일도 제재당한 상태로 죽음의 문턱을 밟는 그 순간마저 병원에서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니 삶의 질은 다른 나라보다 앞서나간다고 하지만 죽음의 질은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좋은 죽음은 집에서 가족들을 얼굴을 보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인 암에 걸렸으며 치료를 할 수 없는 말기진단판정을 받았을 때 우리는 죽음이 라는 것이 곧 내 눈앞에 다가왔음을 부정하기 위해 연명치료를 선택하게 된다. 과연 얼마 남지 않는 삶을 병원에서 보내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과연 질 좋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p> <p>그래서 나는 병원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질 좋은 죽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질 좋은 죽음이란 내가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삶의 끝에서 무의미하게 삶을 연장하는 모습이 아닌 삶의 마무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난 후 맞은 죽음이 질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한다.</p>						

김○은 :

질 좋은 죽음이란 게 하나로 정의된다고 생각하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질 좋은 죽음이란 개개인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죽고 싶은지가 모두 다를 텐데 각자 생각하는 이상적인 죽음으로 그렇게 죽는 것이 질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병원에서 계속 치료 받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죽는 게 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집에서 죽는 게 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다가 죽는 게 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혼자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혼자 죽음을 맞는 것이 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등 호상이라고 생각대로 죽는 게 질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오래 살지만 많이 죽는 대한민국이다. 자살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울증이다. 본초적인 생각이 들었다.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 우울증, 각종 고난을 겪으며 힘들게 살아가는데 왜 그걸 알고도 아이를 낳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일까. 아직까지도 이 이유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얻지 못했다. 나 또한 하루하루를 살면서 힘들게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도 똑같은 힘들이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살아간다. 그 이유는 단지 '그냥'이다. 이 세상에 내 의지 없이 태어난 것과 같이 죽음도 내 의지 없이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것이다. 우리 한국은 이러한 우울증 자살을 막기 위해 대체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고 있는가. 실행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는지 의문점이 든다. 항상 언론보도에서는 자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만 뒷전으로 밀려나 적극적으로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해 힘쓰는 바가 없다. 정치외교문제 등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어가는 이 시국에 현실 파악을 하고도 우리는 자살을 쉽게 바라보고 간과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오래 사는 것보다 올바르게 사는 법을 알아야 한다.

김○연 :

좋은 죽음 즉, 웰다잉은 하나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죽음을 분석한 결과, 가장 우선순위는 고통 없는 죽음이고 그 뒤로 편안한 죽음,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 행복하게 살다 정리된 죽음 등이 뒤를 이었다. 나도 이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후에 내가 죽을 때 나를 죽음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억지로 죽음을 오지 못하게 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웰다잉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생태계적으로도 생각해봤을 때 자연스럽게 죽고 태어나 순환되는 것이 이치이기에 맞다. 이미 자연을 많이 거스른 과학이 죽음에서 도리어 인간의 편안한 죽음을 방해하는 것이 맞는 걸까하는 의문이 든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얻으면서 생존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것. 해서 연명하려고 스스로가 원한다면 그마저도 웰다잉이다. 또 다른 생각으로는 개인이 원하는 형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기에 본인의 마음에만 들면 좋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본래 갖고 있던 생각과 통계를 확인하니 질 좋은 죽음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집에서 맞이하는 고통 없고 편안한 죽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박○현 :

질 좋은 죽음이란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받지 않으면서 집에서 조용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기란 쉽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호상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는 대략 10년에서 20년까지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런 격차는 병원의 의료 서비스 발달로 벌어진다. 이런 부분을 보고 연명치료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이어지면서 안락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다양한 죽음이 존재하게 되고, 질 좋은 죽음을 사람마다 받아드리는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아프지만 오래 살고 싶은 경우도 생길 것이고, 나와 같이 아픈 것 보다 고통스럽지 않은 죽음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죽음을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옆에서 죽어가는 것, 모르는 사람보다는 편한 사람의 주변에서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질 좋은 죽음을 맞이 좋은 국가의 순위를 정리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볼 때 이런 인식을 바꿔줄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경우 1위를 차지한 국가이며 영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임종실의 유무이다. 임종실의 경우 병원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을 많이 가져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죽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임종실의 필요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죽음을 받아드릴 기회가 필요하며, 죽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임종실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환자가 조금이라도 질 높은 죽음을 받아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윤 :

내가 생각하기에 질 좋은 죽음이란 명확히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기반에 깔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선택할 수는 없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질 좋은 죽음이 아닐 수 있고 사고를 당해 뇌사판정을 받고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병원에서 삶을 유지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죽음을 택할 수 없다.

그러나 질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맞이할 환경정도는 미리 생각하고 선택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저자는 임종실조차 없는 병원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질 좋은 죽음이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호상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서 연명치료 장치의 힘을 빌려서라도 세상에서 숨 한 번 더 내뿜고 주변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호상이라 생각할 수 있다. 나도 가능

하다면 병에 걸리더라도 내가 살아오며 소중했던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질 좋은 죽음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질 좋은 죽음은 명확히 무엇이라고 정의내리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질 좋은 죽음이라고 정의하기 전에 사람들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OECD국가 중 자살율 1위인 대한민국, 무엇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은 :

자살 문제를 왜 심각하지 않게, 그리고 뒷전으로 밀려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수치적인 데이터로만 자살을 파악한다. 그리고 자살에 대한 배경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알아도 데이터로만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 고인의 힘들음을 파악하지 못한다. 우리는 실질적인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그 속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지만 정작 그 데이터가 만들어진 배경, 과거에 대한 중요성은 언급되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1위가 고통 없는 죽음이라는데 자살율도 1위이다. 자살을 하기 위해서는 수면제를 먹거나 술을 마셔서 감각을 무더지게 하는 것 등을 이용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한 후 죽기도 하지만 맨정신으로 손목을 긋거나 목을 매어버리거나 연탄을 피우거나 등 자살을 하는 방법은 무조건 고통이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이게 사회의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적인 죽음을 원하지만 실질적인 죽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친 후 우리는 그만큼의 편안함과 부를 쌓았다. 세상을 더 스마트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났다. 하지만 장점만 있었는가. 장점과 반대로 단점 또한 존재했다.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고 꼭 생을 마감하는 죽음이 아니더라도 죽음을 느낄 수 있는 위험, 우울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전기 없이 농사 짓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걱정만을 했겠지만 지금은 사회복지, 심리, 경영적인 부분까지 고려할 부분이 늘어났다. 기술주의 또한 그렇다. 우리는 확연히 발전된 기술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그 기술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박○현 :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회구조를 봤을 때,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경쟁체제가 주된 원인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청소년기의 경우 수능이라는 시험제도에 들어간다. 수능 이전에도 중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와 같은 특별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반에 있는 친구들과 경쟁한다. 이런 부분이 이어져서 고등학교에서는 대학교를 가기위한 경쟁이 시작된다. 이런 경쟁구도가 이어지면서 쉬는 시간이 사라지게 되고, 무한 경쟁시대에 무의식적으로 적응하면서 버티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비극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이후 청년기가 되면 취업을 해야 하는 구조에 접어든다. 대학교 1학년에 서부터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서 공부 및 공모전, 흔히 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생긴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청년기의 사람들은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 이력서를 내려고 하면 경력직을 우선시하는 곳이 대다수이며, 이런 부분은 청년들의 경력을 쌓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면서 청년의 자살률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노인 자살률을 볼 때 고독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독거 노인들이 높은 것을 통계자료를 보면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노인들은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 지역에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으며, 이를 볼 때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노인 자살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우리나라의 자살률로 돌아가서 볼 때, 위와 같은 전 연령층에서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살률 1위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살률에 대해 예방책을 생각하거나,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자살률 1위라는 이야기가 내가 이전 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나온 이야기인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 측면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점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연 :

우리나라는 책에 한 번 언급했듯이 oecd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가장 큰 원인은 경쟁과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생존가치만이 가치라고 여기는 사회가 죽음을 외면하고 있기에 생존경쟁이 치열하다. 이 생존 경쟁에서 본인이 우위에 있더라도 위로 올라가기 위해 겪어왔던 과정이 너무 힘들거나, 본인이 남들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결국 자살을 하게 되는 이유가 남들과의 경쟁 때문인데, 태어나고 죽기 전까지 성적, 학업, 연봉, 배우자, 자식까지 사람들의 재판대에 올라가고 판단된다. 사람이 살아온 행적들이 더 낮고 더 좋다고 판단되면서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는만큼 긴장된 생활을 한다. 게다가 요즘은 sns가 발달하면서 남들과의 비교가 더 쉬워졌고, 얻어야 하는 물건의 평균이 높아지면서 살기 팍팍해졌을 것이다. 남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감정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이 느끼는 것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외로워지기 마련이다. 고통에게서 외로움에게서 도망치는 방법이 자살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하고 자살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많은 자살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 이유와 사회 구조의 원인을 찾아 예방이 되어야 한다. 자살은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이기에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회구조의 원인을 찾아 없애는 것이지만 사회에 뿌리내린 문화를 단번에 바꾸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소소하게 예방이라도 하고자 제안하는 것이 타인을 신경까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가 먼저 타인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관심을 지나치게 해석하지만 않

는다면 심리적 안정감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 남을 칭찬할 때 외적인 부분보다 그 사람 고유의 스타일이나 성격에서 많은 칭찬을 한다. 이처럼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된다면 자존감도 더 올라가고 자살에 대한 생각도 많이 희석될 것이라고 본다.

남○현 :

OECD국가 중 자살율 1위가 우리나라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높은 것은 자본주의국가의 폐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어린 시절부터 경쟁하며 성장한다. 가장 공부를 잘 해야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어, 가장 뛰어나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가장 열심히 응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 등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경쟁에 치여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남들보다 더 가져야 하는 욕망이 있는 자본주의국가, 대한민국의 현대사회에서 무리에서 '뒤처진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려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만약에 뒤처짐이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 나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자살율 1위를 기록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뒤처짐이 느껴지고 난 후에는 좌절감이 느껴질 것이며 그에 뒤따라 허망함이 느껴질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쟁하는 사회구도가 자살율을 높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특히 청소년기의 자살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는 청소년기 민감한 사춘기를 보내는 시기에 경쟁 사회를 막을 수 없다면 학교를 다니며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전문적으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모든 청소년들이 정기적으로 전문적 상담가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를 위해 상담 전문가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가의 개입으로 청소년의 불안정한 심리를 살피고, 문제가 생긴다면 전문가의 원활한 소통을 이용하여 도와주는 것이 청소년 자살율을 낮추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윤 :

한국의 자살율이 높은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보다 타인보다 앞서 가며 느끼는 쾌락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경쟁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경쟁에서 승리해 우위를 차지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분위기가 높은 자살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며 자신만의 재산이 생기고 자본주의로 변화되었다. 자본을 보유하기 시작하며 기술도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욕심을 가진 사람도 그만큼 늘었고 남들보다 가지지 못하면 패배자라는 시선을 받기도 한다. 기술의 발전과 자본주의, 경제사회가 반드시 좋은 영향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패배감이나 우울감을 겪게 되었고 사회는 이런 문제를 포용할만큼 여유롭지 않다.

우울감을 느끼고 끝내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도 극심한 우울에 자살을 택한다. 아직 경험한 세상보다 경험하지

	<p>못한 세상이 더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택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많은 경험을 한 노인들의 자살율이 낮으니까 그것 역시 아니다. 노년층의 자살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p> <p>계속 우울 문제를 언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의 자살 원인 1위는 정신과적 원인으로 무려 38.4%를 차지한다. 한국의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할 것이다.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치고 낙인을 찍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복하여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극심한 우울감을 느끼도록 지나치게 경제하는 사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경쟁사회에서 사람들 극한으로 몰아넣고 그 고통까지 무시해버리니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고 과도한 경쟁이나 부정적 시선 중 어느 하나라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당장 경쟁을 없앨 수 없는 상황이니 우울감을 호소하고 자살에 위협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상담서비스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 우울감을 만드는 원인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p>활동사진</p>	

2022년 11월 2일

참가자대표 : 남○현

북클럽 운영보고서 - 4주차

북클럽 팀명	수료일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 년 11 월 9 일(수요일) / 장 소 : 한울회 동아리방						
참석자 명단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책 제목 : 나는 친절히 죽음을 원한다 (4장부터 7장까지)</p> <p>■ 연명의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p> <p>남○현 :</p> <p>현대사회에서 인생의 마무리를 짓는 가장 많은 곳, 즉 죽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병원이다. 다들 죽음을 암시하면 병원으로 가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이 세상에 몸을 더 담기 위해 연명치료를 받으며 병원에서 무의미한 삶을 지속한 채로 삶을 연명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연명의료에 관한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완화치료와 연명치료에 관하여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화치료는 인간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치료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연명치료는 삶이 끝나기 직전 조금이라도, 단 1분이라도 더 살기 위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다. 병원은 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치료하는 곳이며 치료가 어려운 병원일 경우 남아있는 삶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곳이지 인간의 생사에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명치료가 생기고 난 후 연명치료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인간을 죽이는 것이냐 아니냐 라는 문제도 생겼기 때문이다.</p> <p>그리고 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문장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등 원하는 욕구를 채워가기 위해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연명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병원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으며 모든 행동에 제재를 당하며 살아가는 의미가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삶의 의미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닌 생명체 자체로만 집착을 하는 것처럼 보이며 암흑적인 현실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또한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연명치료는 인간의 욕심이 불러온 사회의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p> <p>이○윤 :</p> <p>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연명의료에 대해 개인 또는 그 가족이 연명 치료를 희망하면 선택할 수 있는 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때때로 어떤 관점에서 연명 치료는 비용은 비용대로 부담되고 환자에게 고통만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의료기기의 힘을 빌려서라도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사용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왔다.</p> <p>책을 읽고 나서는 연명의료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었다.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에는 개인의 선택이 배경이 되어야 하겠지만, 개인이</p>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연명의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내 가치관을 완벽히 정리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책을 읽으면서 연명 치료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정리가 되었다. 연명 치료가 삶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책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장면을 설명하는데 자유와 삶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두고 토론하는 두 인물이 나온다. 한 인물은 ‘자유가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인물은 ‘삶이 없다면 자유 역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삶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자유롭지 못한 삶은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죽음이 가까이에 온 순간이더라도 내 뜻대로 몸을 움직이고 열은 숨이라도 내가 내뱉고 사랑하는 사람과 잠깐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자유롭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연명 치료를 받으며 호흡기를 달고 기계의 힘을 빌려 내뱉는 숨이 과연 얼마나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박○현 :

연명치료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명치료를 하게 될 경우 숨을 쉬며 살 가능성은 높다. 의료 품질의 발전을 통해 이런 부분이 가능해 진 것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생존이 인간의 존엄성 부분에서 이게 인간으로써 죽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사람은 어떻게 죽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를 고민할 때 나의 대답은 “아니다”이다. 사람은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을까? 편안한 생각과 편안함 속에서 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명의료를 하며 의식과 기억이 없이 생존만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인간다운 죽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연명치료를 인간의 관점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병원의 경영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연명의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익을 보기는 어려운 구조가 나온다. 이런 치료 방안을 통해서 병상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계속 된다면 다른 환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연명치료를 활용되는 비용은 비싼 경우가 많다. 치료를 할 때, 치료 도구를 활용할 때의 비용이 많고 이런 부분이 이어진다면 병원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에 있어서 연명의료는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명치료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감정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다. 가족이 죽는 것을 보기 힘들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1%의 가능성을 보고 진행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연명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은 :

연명의료가 간단하게 보면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인데 예전엔 감기 걸려서 약 먹는 것도 연명의료의 일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명의료가 무조건 호흡기와 관련된 의료가 아닌 것이다. 어디까지가 연명의료의 일종이 될 수 있는지 정확한 의료체계가 부족함을 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중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연명의료 중단이 죽음을 초래하는 것을 앞에도 불구하고 연명의료 기기를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금이나마 육체를 세상에 두고 싶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생각했다. 죽음에 대한 존중은 죽음을 기리고 끝나는 것이 아닌 죽음의 원인, 사람이 죽을 수 밖에 없었던 고통을 모두 생각하며 고인의 일대기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기리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당사자와 가족분들을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연명의료 기기의 발전은 옳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뇌사 관련 챕터를 읽기 전까지는 뇌사의 과거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했다. 의료기술이 발전되기 전까지 뇌사라는 개념이 없었을 것이다. 육체와 영혼이 한 몸이 되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뇌사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연명의료 기기의 발전으로 우리는 썩어가는 육체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이 과연 옳은 발전일까.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얼굴을 한 사람에게 인공호흡기를 켜고 숨을 쉬게 만드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 사람답게 죽지 못한다는 것은 인공호흡기의 또 다른 말로 느껴졌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환자가 원한다면 인공호흡을 계속 하고 있기가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담 혹은 의료연구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뇌 기능의 정지 즉 뇌사판정은 더 이상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어진다는 것이며 영혼은 죽었지만 육체는 살아있음을 이야기 한다. 영혼은 항상 떠 돌아 다닌다. 육체는 영혼을 담은 그릇과 같다. 하지만 영혼이 없는 육체는 곧 썩을 그릇일 뿐이다. 우리는 썩어가고 있는 그릇을 붙잡으면서 까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가.

김○연 :

연명의료라는 최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좋은 죽음의 기준이 점차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질 좋은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연명의료를 받게 되면 질 좋은 죽음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고통없고 편안한 죽음과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죽는 것 등은 모두 병원에 가는 순간 힘들더라도 치료를 받아야하고 치료비 또한 엄청나다. 웰다잉보다 조금이라도 살고 살리는 것이 선택된 것이다. 특히, 병원 측에서는 보라매병원의 사건 이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명의료를 무조건적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연명의료가 당연시되면서 임종 직전의 환자의 목숨을 붙잡아 두고는 있지만 임종 이후의 장례식장 외에는 임종을 맞이하는 임종실이 병원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연명의료만을 중심으로 임종에는 중요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병원의 비용절감을 위해 임종실을 배치않는 실태이다. 또한, 의료진들은 환자의 죽음을 꽤배로 받아들이며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한다. 연명의료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진행하지만 그 이후의 죽음에는 신경쓰지 못하는 것이다. 과연, 연명의료만이 그들의 최선인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한 의료진의 욕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에 따르면 한 사람이 평생 내던 의료비보다 연명의료를 통한 죽기 전 몇 년 남짓이 몇 배는 비싸다고 한다. 그만큼 환자를 살리기 위해 진행한 연명치료가 환자가족들의 부담으

로 다가오며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압박이 되고 있다. 연명의료를 받는 가족을 죽이거나 동반자살을 하는 등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끊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보라매병원 판결과 같이 생명절대주의원칙을 시행하며 연명의료 중단은 살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가족들이 짊어지고 가야할 마음일 뿐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자연스러운 죽음을 연명치료라는 목적으로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기에 치료 중단을 한다고 해서 살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자와 같이 무조건 연명의료를 하는 것이 아닌 환자나 환자가족의 의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명의료를 원하는 사람 외에 치료를 이어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된다.

■ 어떤 방법이 죽음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남○현 :

사람들은 더 좋은 삶, 질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한다. 어렸을 적부터 미래를 그리며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생각한 것들을 토대로 실제 인생을 그려나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그리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펼치고 각자 자신들이 생각했던 삶을 이루어 내면 성공한 삶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죽음'은 꺼내기도 무서운 단어이며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 심지어 죽음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병원에서조차도 함부로 입에서 꺼낼 수 없는 단어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쳐야 죽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하여 고민은 많이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는 어떻게 맞이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자주 접하고,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죽음의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하여 '너 어떻게 죽을래?'가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가오는 속도가 다르며,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삶의 소중함도 같이 가르치는 것이다. 어르신들은 힘든 일이 있을 경우 '아휴 내가 오래 살아 문제지 얼른 죽어야지.'라는 단어를 쓰고, 회사생활을 하고있는 성인들조차 힘든 일이 있으면 '죽고싶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현재 죽음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선은 매우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죽음'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해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죽음을 다루는 교양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인 삶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죽음의 질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윤 :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람들이 죽음은 항상 우리의 곁에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죽음을 맞이 한다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 언제든 사람은 죽을 수 있고 그 죽음은 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도 ‘메멘토모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메멘토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의 말인데 이 표현은 결국 죽음이 가까이제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곁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에게도 죽음에 대해 알려주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소년기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유서를 써보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의료 제도는 다른 국가의 의료 제도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진 것이 많다. 이러한 제도는 한국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많은 전문가나 다양한 층의 대상과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급하게 만들어낸 체계에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혼란스러운 의료체계를 수정하는 과정 역시 깊이 있게 문제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 보니 제대로 된 의료체계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도 혼란과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죽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급하게 제도를 수정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박○현 :

책에서 소개하는 방안이 5가지 정도 나온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5가지 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4가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방안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지막 방안에서 병원에 있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죽음에 대해 교육을 하자고 하지만 의료 종사자가 이 말을 잘 들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의료계 종사자의 대부분은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자신의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위와 같은 방안을 통해서 죽음의 질이 향상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아니다”라는 답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볼 때 내가 생각하는 방안은 안락사와 공공의료의 확대이다. 안락사의 경우 스위스와 같은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다. 안락사의 금지를 볼 때 이유는 많은 사람이 고민없이 죽음을 원할 것이고 사망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사망률은 그리 높지 않다. 죽겠다는 마음으로 갔지만 상담을 통해서 위와 같은 마음을 접을 수도 있으며, 실제로 죽음에 이르기 전에 다양한 방안으로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다. 위와 같은 방안을 우리나라에서 가져온다면 질 좋은 죽음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공공의료의 확충을 통해 호스피스와 임종실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죽기 이전에 가장 편안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호스피스와 임종실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민간 병원에 있어서 두 종류의 장소는 크게 돈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병원에

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병원에 힘을 두는 것이 현실성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김○은 :

6장 "후회없는 삶에 도전하다"를 읽고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하든 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잔존한다. 후회 없는 삶이 있을 수 있을까? 후회가 없다가 보단 후회가 적은 삶을 택하는 것, 아니면 후회가 많더라도 그 후회로 인해 내가 성장할 수 있던 삶에 대해 도전하고 싶다. 비록 오늘날해도 아침에 일어날 때 어제 조금만 더 일찍 잠결 하며 후회를 하고 전날 가방을 챙겨왔거나 입을 옷을 준비해뒀더라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진 않아도 됐었을텐데 하며 후회를 한다. 졸려도 꼭 참고 수업을 들었어야 하는데 하며 또 후회를 한다. 우리의 삶은 선택과 후회, 그리고 성장으로 이루어진다. 무엇을 하던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그에 따른 후회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후회를 통해 반성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녀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죽음까지 살아내다" 챕터를 읽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죽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을 확고히 정리시켜주기 위한 질문으로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있을 것이다. 나는 자기만족에 산다.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남자친구 사귀고 행복을 느끼고 슬픔 속에서 더 나아가는 것 같다. 나는 자기애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더 성장시키고 극한까지 올려보는 그런 과정을 즐기는 것 같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나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 성장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성취감,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사는 것 같다.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며 동기가 충분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 같다. 영화 <소울>에서 22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 것과 같이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것 학교나 사회복지, 상담을 통해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연 :

우리나라의 관행은 집에서 죽는 것이기에 병원에서의 죽음이 당연히 되는 새로운 규범사회가 열린만큼 그에 맞추는 것은 좋은 발전이지만 그 전의 관례 자체가 무시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노인들은 아직 집에서 죽기를 희망한다. 두 규범이 적당한 혼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하는 죽음을 얻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죽어가는 과정마저 선택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러한 선택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연명의료와 질 좋은 죽음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쉽게 얘기하나 죽음에 대한 토론은 꺼리는 분위기이다. 국가에서 일어난 연명의료 사건 중 보라매병원과 센브린스 병원 등의 사건을 통해 존엄사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존엄사는 안락사의 부정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예외를 둔 것이 존엄

	<p>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것으로 이와 같이 합당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에 죽음에 대한 논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안락사와 장기기증같은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여 죽음에서까지 정체성과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죽음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니 죽음에 대한 고찰이 더 필요하다. 국가가 나서서 죽음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토론하고 제도를 적용시키고 질 좋은 죽음이 우선되어야한다는 생각으로 병원 내에 임종실이 마련되거나 호스피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활동사진</p>	

2022년 11월 9일

참가자대표 : 남○현

북클럽 운영보고서 - 5주차

북클럽 팀명	수료일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 년 11 월 16 일(수요일) / 장 소 : 한울회 동아리방						
참석자 명단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책 제목 :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1장, 2장)</p> <p>■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가, 죽어가는 것인가?</p> <p>남○현 :</p> <p>우리의 인생을 한 권의 책에 비유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우리는 태어남을 통해 인생이라는 책의 프롤로그를 작성한다. 청소년기를 겪으며 인생의 큰 틀, 즉 책의 목차를 작성해 나간다. 그리고 성인기를 맞으며 목차의 수정과 함께 책 안에 존재하는 에피소드를 직접 그리며 인생이라는 책의 핵심적인 줄거리들을 그려나간다. 책의 에피소드가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인생도 삶의 끝을 달려가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인생은 죽어가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책도 마무리를 짓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추가하고 핵심 줄거리들을 추가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삶의 최종적인 결과를 위해 단계를 쌓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p> <p>또한 인간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생태학적인 이유로도 죽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었던 진시황도 영생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며 수은까지 마셨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였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본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죽음과 가깝지 않은 시절에 속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판단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멀리서 바라보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나는 우리의 인생이 ‘죽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p> <p>이○윤 :</p> <p>이 주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내 생각이 꽤 확고했다. 나는 사람은 죽어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이상 죽음의 순간도 맞이할 수 밖에 없다. 탄생의 순간부터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기에 탄생의 순간에서 죽음의 순간까지 숨을 쉬는 행위는 결국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 사랑,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 등 각자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지만, 이것 역시 죽어가는 과정에서의 의미를 찾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찾은 수많은 삶의 의미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삶을 가꾸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형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필요한 과</p>						

정이다. 나 또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 작은 의미들 하나에 여러 감정을 느끼면서 생활한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있음에도 내가 늙어가고 있으며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가치를 형성하는 이 모든 과정 자체에도 사람이 살아간다고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죽어간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생물학적인 발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 생물학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있지만, 이 시기는 전체 수명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에 살아간다는 말에는 순간순간 모순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영양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며 인류의 수명에 대해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 100세 시대라고만 계산해도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성장을 이루는 시기는 20%에 불과하다. 생물학적 성장이 끝나면 인간은 계속해서 노화 과정을 거친다. 뿐만아니라, 안타깝게도 성장 과정에서도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보면 죽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의 곁에 있다. 역설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죽음은 결국 삶과 함께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어간다고 생각한다.

박○현 :

이 주제를 바라볼 때 생각해야하는 것은 현재 우리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시절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답은 '아니다'일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것을 시작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간다. 또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상상하기 보다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를 볼 때 죽어가는 것인가,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답은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죽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반증을 들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자면 '자살', '타살'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 자살이라는 것은 문제라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한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라면 '자살'이라는 주제가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가.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죽어간다. 하지만 이에 우리는 문제점을 제시한다. 사람의 심리적, 신체적, 마지막으로 경제적 가치 또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사람이 죽으면서 인적 자원의 낭비, 사회적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문제 등을 이야기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는다.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과정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자신이 선택한 죽음을 국가 및 개인적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죽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사람은 죽어가는 것보다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인가, 죽어가는 것인가를 양립할 수는 없다. 연령대가 젊을수록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령일수록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이유가 된다. 이를 볼 때 두 가지를 구분하기 보단 두 가지의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김○은 :

인간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아픔이다. 아이의 숨을 띄게 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때리고 아이는 그 아픔, 놀람으로 울음을 터뜨린다. 우리는 감정으로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감정으로 죽는다.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다. 감정의 노화가 이루어지며 죽어가는 것이다. 친구가 순간 그런 말을 했다. "고등학생 여자애들을 봤는데 별것도 아닌거에 웃더라? 그 나이대는 낙엽 떨어지는 것만 봐도 웃을 나이로잖아. 그게 진짜인거 같아" 라고. 20대가 된 우리는 언제 웃었을까. 하루에 한 번은 꼭 웃을까? 아니면 한 번도 웃지 않는 날이 얼마나 있을까. 나이가 들어 30대 40대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정을 잃어버릴까.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감정을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은 감정의 노화로 죽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수와 깊이를 보면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마는 항상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 "채은아, 엄마는 10월에 죽을거야. 집에서 낮잠 자다가 죽고 싶어. 그래야 엄마 생일이랑 제삿날이랑 같아서 너희들이 덜 번거롭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고 벽에 뚫칠할 때까지 오래 살아야 한다며 웃으갠소리로 넘기지만 부쩍 엄마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신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죽음에 대한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수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살기 위한 목표를 정한다. 하지만 결국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꾸미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름다운 죽음, 명예로운 죽음 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아무것도 안하고 죽을 순 없기 때문에 그 동안의 자연적인 발전 및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김○연 :

사람은 살아간다. 죽음은 갑작스럽게 또는 세월이 흘러 찾아온다. 언제 올지 예상치 못하는 무형의 것으로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것이란 걸 알고 있을 뿐이지 죽기만을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좀 더 잘 살아 보고자 학업, 직업 등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쌓아간다.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돈과 권력 등은 죽으면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부와 명예 같은 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본인의 행복을 위해 사랑이나 우정과 같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누구나 전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물질이나 감정적인 것들로 채워진 충족적인 삶을 원하고 치열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죽음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없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다. 좋은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죽어가고(늙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말하는 요즘 친구들 주변 또래들만 봐도 이른 나이에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젊고 건강할 때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나이가 들면 잔병치레도 많아질 것이고 늙고 아픈 몸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젊을 때 인생을 즐겁게 살고 죽고자 하는 것이다. 게다가 죽음에 가까워지면 삶에 대한 미련이 많아질 것 같아 죽고

싶지 않고 싶을 것 같다. 삶의 마지막에 와서야 살아가는 것에 미련을 두기보다 현재 살아가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고자하는 욕구가 있고 살아가기에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기에 사람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삶을 위해 죽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어간다는 것보단 죽음에 가까워져간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중이다. 결국 사람은 살아간다.

■ 책의 내용 중 인상 깊었던 이야기

남○현 :

나는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다. 판단을 내릴 때 감정에 휩싸여 판단하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판단해 이득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택을 하는 순간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그 날개가 꺾이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결국 고인이 되어버린 한 젊은 남성의 에피소드 ‘현실을 버터내는 용기’가 가장 인상에 깊게 남았다.

책의 저자는 고인의 물건을 정리하는 직업으로 자신이 직접 고인의 방을 치우며 있었던 에피소드를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 한 권으로 정리하였다. 내가 소개하려는 이번 에피소드에도 저자는 고독사로 발견된 고인의 물건을 치우러 고시텔에 방문하게 되었다. 저자는 고시텔의 한 방에 가득 차 있던 고인의 물건을 치우던 중, 고인이 살아생전 사용하였던 전공 서적들을 보게 되었다. 기계공학과 관련된 서적들과 전기 관련 자격증 수험서들이 벽 한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이러한 고인의 유품들은 살아생전 고인이 어떠한 삶을 준비하였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듯하였다. 벽에 붙어있던 쪽지 한 장에는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게 된 새내기 000입니다.’라고 적혀있었으며 기계공학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 한전에 취직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처럼 보였다. 고인의 유품들은 취직에 대한 목표가 매우 간절해 보였지만, 죽음을 택하게 만들었다. 고인은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 꺾인 날개로 인해 평생 날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죽음을 택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 책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세상을 떠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 에피소드 마지막 저자가 적은 한 마디가 나의 심금을 울렸기 때문이다. “대학 못 가면 어때, 한전 못 들어가면 또 어때. 꼭 그래야만 행복한 건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우린 아직 젊잖아.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한테도 좋은 날이 올 거야. 힘내자. 끈까지 한번 버터보자!”

이○윤 :

이 책은 총 4장까지 이야기가 나뉘어 있고 이번 토론을 위해 책의 절반인 2장까지 읽었다. 책에 담긴 여러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화장실에 놓인 국화 한 송이’라는 제목을 가진 에피소드이다. 이 책이 유품정리사가 쓴 책이다 보니 그가 경험한 다양한 죽음 이후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가 자신의 딸과 나눈 대화가 담겨있었다. 책 속에서 고인의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마저 고인의 유산

에만 관심을 가지고 죽음의 현장이나 그 현장을 정리하고 고인을 보내드리 는 일을 하는 유품정리사, 장례 지도사에게 매몰찬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 했다. 어떤 사람들은 유품 정리 일을 하는 작가에게 부정 탄다며 소금을 뿌리거나 죽음의 현장을 정리하는 사람이라 냄새가 난다는 등 험한 언행을 일삼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며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화장실에 놓 인 국화 한 송이’라는 이야기에서 그동안 나왔던 인물과는 상반되는 생각 을 전해주는 인물이 등장해서 더 기억에 남았다. 고인의 가족들도 고인과 고인의 삶을 정리해주는 유품정리사를 외면했는데 오히려 나이가 어린 작 가의 딸이 유품정리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일깨워주었다. 책 속에서 작가는 자신의 딸아이에게 “아빠가 하는 일이 무섭지 않아? 아빠한테서 냄새는 안나?”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딸아이는 “아빠는 죽은 사람들이 잘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아빠한테 고마워하겠단. 죽고 나서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니까.”라고 대답한다. 작가의 딸이 대답한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어려운 표현을 하나도 쓰지 않고도 유품정리사 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진 일인지 알게 해주었다. 가족도 외면 한 고인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소중히 정리해주는 일이 결코 무시 받아서는 안된다는 위로를 전하는 듯했다. 물론, 모든 고인의 죽음이 외면당하는 것 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유품정리사의 일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딸아 이와 나눈 이 대화가 유품정리사라는 직업의 가치를 한번 더 강하게 인식 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박○현 :

이 책은 저자가 경험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책을 서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책에 비해 빠르게 읽을 수 있었고 인상 깊은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주제는 돈에 미친 사람들이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돈은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볼 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돈의 유통 이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볼 때 인간의 3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 가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뉴스를 보면 가족을 죽여서 보험금을 노리는 사건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금품을 노리고 살인을 하는 경우, 보험을 타기 위해서 일부로 차 사 고를 내는 사건은 뉴스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의 사회는 왜 이렇게까지 피폐해진 것인가?

이 책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었다. ‘자식을 향한 작은 바람’이란 에피소드를 보면 부모가 죽어 자식들이 물건을 챙기러 오는 장면이 나온 다. 하지만 부모가 죽은 곳에서 자식이란 사람들은 유품을 찾기 보단 자신 들이 살기 위한 돈을 찾기 바쁘다. 또한 부모님의 앨범사진을 유품 정리사 가 줬을 때 앨범을 던지면서 필요 없다는 듯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집문서와 돈 500만원만을 챙겨가 는 것에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과연 살아가면서 돈 500만원이 무슨 의미 가 있는가? 집문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모님이 가는 길에 있어서 돈 을 먼저 챙기는 것보다 잘 가시라는 묵념을 한번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 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

과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까지 폐쇄한 사회가 된 것인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고민해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하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한다.

김○은 :

‘삶의 의지를 잃었을 때’라는 에피소드가 인상에 깊이 남았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낳았으니 당연하다고 하지만 과연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은 왜 당연한 일이 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했다. 성인이 되어도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도 있는 반면 독립이라는 탈출구로 도망쳐 나온 자식들이 있다. 나도 항상 독립을 원했고 지금도 독립을 원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독립과는 다르다. 현재 학교 기숙사에 살면서도 주말에는 꼬박꼬박 집을 간다. 시험 바로 전 주는 공부를 해야 해서 못가는 것 빼고는 정말 2년 동안 기숙사에 살면서 일주일마다 집을 간다. 엄마가 기숙사를 보내주는 조건이었다. 엄마가 하신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책에서도 했다. 하루 한번,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 번, 세달에 한번. 이렇게 계속 점차 시간을 늘려 보지 못한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 것이다. 이해하지 못하면 남과 같다.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보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감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김○연 :

에피소드 형식으로 저자의 경험을 풀어낸 것으로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죽음의 잔여물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자의 이야기를 읽다보니 죽음의 당사자와 그의 가까운 자들에게 여러 감정이 느껴졌다. 당사자의 행동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 주변인들의 만행에 착잡하기도 하였지만,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에 대한 감정이 가장 강렬했다. 특히, 할머니들이 당신의 죽음을 정리하는 내용들을 읽으며 너무 슬퍼 눈물이 흘렀다. 본인도 할머니들이 있는 손녀로서 감정이 이입되었다. 떠난 후를 생각하며 가는 길이라는 에피소드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 중 한 할머니가 죽기 전 당신의 물건들을 필요한 이웃들에게 가져가라 미리 언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무슨 물건을 줄 것인지 이미 말을 해두었던 내용이 가장 인상 깊다. 죽기 전 당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사용하던 물품들을 직접 지정하여 나눠주는 행위로 담담하게 주변 사람부터 챙겼던 사람이 있다. 책으로밖에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마음씨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다. 저자 또한, 할머니의 방을 보고 종이학과 성경책을 등 살아가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했었는데 방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던가, 깔끔하고 다정한 성격일 것이라 감히 예상해본다. 죽고 난 뒤에 남은 물건과 사람들에 대한 이른 정리를 하는 것이 멋있다고 느껴졌다. 나의 죽음으로 누군가의 내일이 좀 더 풍족해진 수 있다면 나 또한 이처럼 살리라. 혼자 생활하는 방에서 떠나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 할머니의 방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 슬펐다. 짧지만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에피소드이다.

활동사진

2022년 11월 16일

참가자대표 : 남○현

북클럽 운영보고서 - 6주차

북클럽 팀명	수료일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 년 11 월 23 일(수요일) / 장 소 : 한울회 동아리방						
참석자 명단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책 제목 :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3장, 4장)</p> <p>■ 고독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p> <p>남○현 :</p> <p>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나는 사회복지학과로 죽음 중 특히 고독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지역사회복지학’이라는 교과목을 수강할 때 어르신들의 고독사에 대하여 배우면서 어르신들을 직접 인터뷰 하고 다닌 적도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의 나는 고독사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대상으로 속한다고 생각했었다.</p> <p>그러나 책 속의 고인들은 2-30대의 청년들부터 5-60대의 어르신들까지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해당하였고, 고독사로 비참하게 삶의 막을 내렸다. 나는 특히 젊은 사람들의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서 직장 내 상담시스템을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상황만 판단하고 이득만을 쟁취하며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직장인들을 마음의병을 갖고 살아간다. 책에 나온 고인들도 모두 마음의 병을 갖고 있었다. 또한 직장 내 상담시스템이 있는 곳은 많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곳은 많지 않다고 들었다. 먼저 사람들이 직장 내 상담시스템을 가기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회사 내 이상한 소문이 돌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 회사 내 상담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철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만들어 상담실의 역할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직장 내 상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 마음의 병이 생긴 사람들이 상담실을 찾아가게 된다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줄일 수 있고 고독사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p> <p>두 번째로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방법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어르신들이 고독사로 발견되는 이유 중 하나로 개인주의가 되어버린 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족들과 연락도 자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변의 이웃들과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독사로 발견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를 줄이기 위해 다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급식소를 개설하는 것이다. 특히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에 ‘동내 급식소’를 설치하여 동네 이웃 어르신들이 친해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여기서 급식소 관리 및 운영은 청소년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친구들이 어르신들의 식사를 직접 만들며 봉사시간을 얻게 하면 더욱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p>						

이○윤 :

핵가족화가 진행되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 떨어져 지내는 사례가 늘었다. 그렇게 연령에 관계없이 홀로 지내는 사람의 수도 당연히 늘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지속적으로 고독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사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만 끌어안고 집으로 들어가 우울의 원인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모임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과 10년 전에 있던 내 경험만 이야기를 해도 이웃 분들이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나를 돌봐주셨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나눠먹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몇 명이 사는지는 관심 밖의 일이 되었고 층간 소음은 심한 경우 살인까지 불려왔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며 우리는 이웃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기보다 우리 집 문을 더 굳게 잠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다.

이러한 사회분위기가 결국 내 옆집에서 사람이 쓸쓸히 죽어도 모르는 사회를 만들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이나 제도적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모임을 지원해주는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이웃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모임을 가지고는 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임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발적으로 이웃 모임을 만들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려는 곳에 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주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한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이웃 모임을 만들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증명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그 모임에 지원금이나 기타 생활에서의 지원을 제공하면 우리 사회가 보다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분위기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현 :

고독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병원에서 죽지 않으면 대부분 혼자 집에서 죽음을 받아드리게 되는데 이를 예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보면 노인복지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노인복지에는 다양한 것이 포함된다. 취미생활에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독거노인 맞춤 서비스 등이 있을 것인데 이를 더욱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례관리를 1주일에 한번을 가서 하면 조금 더 깊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노인 분들께서 사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복지를 포괄적으로 넓히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후 처리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토로한다. 약간의 추모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생각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다. 시체를 방에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 생각하지 못한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 이런 냄새를 지우는 것은 전문가만 가능할 정도로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 오랜 시간 지속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청소를 하지 못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안도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볼 때 사후 처리의 경우 빠른 대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김○은 :

고독사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이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정신건강 돌봄으로 우울증, 고독사 등 고독사의 예방 정책을 많이 내고 있고 주요 뉴스에 '고독사 없도록'과 같은 취약 청년도 살피는 현황이다. 이번 주차는 고독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고독사 예방, 고독사 후 관리로 나누어 생각해보았다.

우선 고독사 예방으로 독거노인들에게 한 명씩 봉사자를 배정해주어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손발을 씻겨 드려 위생을 관리하고 말동무를 해드리는 복지 체계를 키워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청소년 학생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울 때 개인 봉사보다 독거노인들과 관련된 봉사를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독사 후 관리는 비밀리에 청소작업을 시작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직계가족들과 함께 청소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업체의 청소 범위를 어느 정도 범으로 제한해 뒷 직계가족이 청소를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확인하고 마지막까지 가는 길에 얼마나 외로웠는지 고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다.

김○연 :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회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년 전만 해도 사회는 이웃과 정이 넘쳤고 나눔과 도움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인식이 공공연하게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이 높았기에 이웃의 존재를 알았고 죽음이 방치되는 경우는 많이 없었다.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 발견되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저지당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현대인으로서 개인적인 삶과 생활이 남들의 관심에서 자유롭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공동체 생활도 아동은 정신적 발달, 청소년은 생활력 증진, 중장년은 피로 해소, 노인은 외로움 해소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필요한 요소이다. 특히, 죽음에서는 이웃과 정기적으로 마주치기만 해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라도 충분한 것이다. 이를 넘어서면 점점 관계를 넓혀 나가 지역사회 활성화를 통한 단체 활동 등을 통해 이웃과의 만남만 이루어져도 나의 소식이 없으면 다른 이들이 낚시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동체 의식의 활성화로 고독감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가적인 효과들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정기건강검진처럼 정기정신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것이다. 아직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는 것에는 편견이 깔려있다.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정신적 치료를 받기를 꺼려한다. 이를 국가나 회사에서 정기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게 한다면 눈치 보지 않고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고독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탁월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죽음과 가까운 우울증을 예방하는 것은 삶을 살릴 뿐 아니라 업무와 같은 일상에서도 능률을 높일 수 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다보면 본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길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1~2년에 한 번씩만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아도 문제가 생기면 꾸준한 상담으로 이어져 상태가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실행되면 좋을 것 같다.

■ 책의 내용 중 인상 깊었던 이야기

남○현 :

가정의 행복은 곧 가정의 안정감을 가져온다. 나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에피소드로 ‘고통, 삶에 다달이 지불하는 월세’를 꼽았다. 여기서 고인은 20대 초반 여성으로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20대 초반에 죽음을 맞이한 이유가 가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 할 정도로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에피소드의 고인은 부모님의 이혼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될 정도로 좋은 면모를 보여주지 않았다. 고인이 발견된 직후 집주인은 고인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부모님들은 딸이 죽은 이유가 서로의 탓이라고 큰소리로 싸웠다고 한다. 서로 ‘네 탓이오’로 일관하는 부모로 인해 딸은 의지할 만한 가족도 없었고,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고통 받았을 것이라 짐작이 간다. 부모로 인해 고통 받았고,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부모에게서 떠나갔지만 결국 돌아오게 된 것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지역에서 고독사로 삶의 마지막을 보냈다. 나는 가정의 평화가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에피소드를 보고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가장 인상이 깊게 남은 에피소드라고 생각한다.

이○윤 :

이번 책의 3,4장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3장에 나오는 ‘그리움에 눈이 멀다’라는 에피소드이다. 이 에피소드가 마음에 남은 이유는 이 이야기에 표현된 미련과 사랑하는 마음이 아파서였던 것 같다. 이 에피소드는 외모도 예쁘고 다들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가족과도 애뜻한 사이를 유지하던 여성이 어느 날 불현듯 가족으로부터 멀어져 혼자 지내게 된다는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영문을 모르는 가족들은 상심이 컸고 여성의 어머니는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이 여성은 가족에게 신병이 났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 신 내림을 받고 점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어머니가 자신이 떠난 뒤에 병으로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는 결국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 이 여성에게는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강아지는 자신의 하나뿐인 가족이자 자신을 돌봐주던 여성이 죽자 다시 그 여성을 깨우려고 노력하듯 꽤 오랜 시간을 혼자 짊어

다. 이 책의 작가가 이 죽음의 현장을 찾았을 때, 강아지는 짓느라 높아진 안압으로 인해 결국 안구를 적출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녀가 가족의 사랑을 그리워했던 만큼 그녀의 소중한 가족인 그 강아지도 그녀를 그리워하다 자신의 눈까지 잃은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다. 가족들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드러나는 에피소드라서 더 기억에 남았다. 이 여성이 죽음을 택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는 마음이라 더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에게 결국 자신의 신 내림을 밝히지 못했던 딸이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며 홀로 지낸 시간은 얼마나 외롭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다면 조금만이라도 일찍 연락해보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이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았다.

박○현 :

‘3장 모두가 원하는 죽음’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전과 다르게 현재는 젊은 고독사도 많이 발생한다. 핵가족화와 도시화에 가속으로 인해 가족들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연락의 빈도가 적어지면서 소식을 잘 못 듣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 에피소드의 사망자 또한 같은 내용이다. 가족들을 집에 두고 멀리 나와서 혼자 지내며 일을 하다가 일에 대한 상실감으로 인해 고독사를 한 것이다. 이런 고독사를 발견하기 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번 죽음에서 발견까지 4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으며, 가족들 또한 놀라서 우는 경우가 생겼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서로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잘 하는 것, 조기 발견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와 반대의 내용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유가 된다. 한 할머니의 죽음은 명절에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죽음을 가족들이 봤을 때 슬퍼하지 않았으며, 아프지 않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 다행이란 이야기를 한다. 이 내용과 아까 이야기한 죽음에 대해서는 상반된다고 생각한다.

과연 사람들이 원하는 죽음은 무엇인가. 원하는 죽음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죽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에피소드였으며, 상반되는 내용에서 오는 고민이 나에게 마음을 울렸다고 생각하고 인상 깊은 에피소드로 남았다고 생각한다.

김○은 :

‘4장 누가진짜 가족일까’라는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많아졌다. 우리는 어떤 마음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사는 것일까. 동물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사냥용 혹은 집 지킴이용 등으로 쓰여졌지만 현재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외로운 마음을 달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며 감정을 공유해 가는 존재가 된 것이다. 홀로 죽어가는 할머니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킨 건 하얀 개였다. 짐승의 본능을 억누르며 할머니를 먹지 않은 개의 마음. 개(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생각했다. 가족이란 개념은 무엇이고 어떤 관계를 일컫는 말이며 내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 줄 수 있는지 생각했다.

김○연 :

책의 내용 중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많이 나온다. 아무래도 타인을 잘 신경의 않고 죽음의 경계에 가까워져 홀로 죽어가는 이들이 많아지는 사회 상황에 따라 고독하게 죽어가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혼자 살다가 보살핌을 못받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는 가족과 함께 살지만 차가운 집의 외판섬같이 방에서 죽어간 할머니의 내용이다. 그 가족이 살아가는 법이라는 에피소드에서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녀 4명에서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할머니의 죽음을 며칠째 알지 못하고 방치하였다. 할머니 외에 세 명의 가족 구성원들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가고 나설 때 인사 한 번, 아침이나 저녁에 밥을 한 번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일까. 집에는 온기가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4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집이기에 더 심한 외로움이 느껴졌을 것이라 예상한다. 손녀는 할머니를 사치스러운 분이라고 불렀다. 어디선가 외로움을 충족시키고 싶었던 욕구가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를 본 적이 있다. 할머니는 화려하고 비싼 물질들로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자 하였다. 비록 그 행위가 가족들에게는 더 할머니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요인이더라도 말이다. 사치를 하면 할수록 가족들은 할머니를 더 외면하고 그리고 또 사치하고자 악순환이 생긴 것 같다. 그렇더라도 같은 집에 살면서 말 한마디 섞지 않는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대화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갈등이 생기더라도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노력한다. 대화는 나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게 된다. 때문에 그저 무시로 일관된 가족들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 대체 할머니가 무슨 짓을 했을지 대한 의문과 한 명도 노력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에 환멸을 느꼈다. 그들이 좋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 특히나 인간의 이중성을 본 것만 같아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

활동사진

2022년 11월 23일

참가자대표 : 남○현

북클럽 운영보고서 - 7주차

북클럽 팀명	수료일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 년 12 월 02 일(금요일) / 장 소 : 한울회 동아리방						
참석자 명단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책 제목 : 천개의 바람이 된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p> <p>■ 내가 실제로 경험한 죽음은 무엇이 있으며, 이를 보고 무엇을 느꼈는가?</p> <p>남○현 :</p> <p>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우리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나도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다.</p> <p>내가 죽음을 처음으로 경험 했던 시절은 아주 어린 시절이었다. 나는 초등학교 때 학교 앞 문구점에서 500원에 파는 병아리를 데려온 적이 있었다. 원래 오래 못 사는 수탉들을 저렴하게 팔아 같이 산 친구의 병아리는 하루 이틀 살아있다 시름 시름 죽었지만, 우리 집 병아리들은 우렁차게 커서 닭이 되었다. 하지만 인간보단 닭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결국 내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병아리를 잘 물어 주었다. 그 닭은 먹이를 주는 우리 엄마만 따랐고 그래서 닭에 대한 애착이 가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죽음을 처음 경험하였을 때 많이 슬프지 않았었다.</p> <p>다음으로 경험한 죽음은 중학교 1학년 때 겪은 할아버지의 죽음이었다. 간암으로 고생하시던 할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이 또한 그렇게 슬프지 않았다. 친척들이 많다보니 예뻐 많이 받지 못했고 항상 혼만 나서 그랬던 것 같다. 할아버지와 애착도 크지 않아서 많이 슬퍼하지 않았었다.</p> <p>하지만 세 번째로 경험한 죽음은 나에게 너무나도 큰 슬픔을 가져왔다. 나에게 부모님보다 큰 사랑을 주시고 애착관계가 남달랐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죽음이었다. 외할아버지가 먼저 하늘로 가시고, 외할머니도 한 달 뒤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셨는데 연속으로 맞이한 죽음이 나를 크게 울게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p> <p>어린 시절의 나는 죽음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감정이 휘몰아치지 않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책을 읽으며 나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모든 영향과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p>						

이○윤 :

어쩌면 우리는 늘어난 수명의 기준에서 얼마 살지 않은 사람이겠지만, 살아오며 경험한 죽음이 있고 내가 경험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각박해진 사회 분위기에 자살을 했다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의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기사에서도 접하기 쉽다.

이러한 간접적인 죽음을 제외하고 내가 뭔가 더 직접적으로 겪은 첫 죽음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다. 치매를 앓고 계시던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를 만나러 요양원에 다녀온 지 이틀만의 일이었다. 이틀 전에는 내내 못 알아보던 손녀딸의 이름까지 불러 주셨다.

학교에서 평소와 같이 수업을 듣고 있었다. 나는 내 나이가 죽음을 경험하기엔 여전히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할아버지의 죽음은 내 삶에 큰 사건이었다.

부모님께서 먼저 집에 가있으라고 하셔서 혼자 집에 돌아갔는데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서 멍 때리며 집에 돌아갔다. 그렇게 집에 가서 혼자 방에 앉아있는데 그제야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와 함께 한 추억이 많아 그 죽음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다 부모님이 오시고는 안 운 척 했다. 아빠는 아프셨던 아버지도 이제는 곁에 안계시게 된 상황이었다. 나는 아빠가 애써 눈물을 참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그래서 나는 더 크게 울 수 없었다.

내가 처음 경험한 죽음은 그냥 빛 한 줄기 없는 깜깜한 밤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무섭고 공허했던 것 같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보내드렸고 나는 이후에도 한동안 울음을 참으며 지냈던 기억이 있다.

지금도 할아버지가 가셨던 시기가 찾아오면 슬프지만 그래도 이제는 슬픔보다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더 많이 떠오르고 그 추억을 잊지 않으려고 엄마와 소중히 꺼내두고는 한다.

이 책의 수많은 편지를 읽으며 할아버지에게 편지 한 통을 써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박○현 :

내 주변에 있는 죽음은 경험해본 적이 없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 할아버지의 죽음이 있었으며, 친구 부모님 장례식장정도만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충격, 슬픔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죽음 중 하나를 선정하고자 한다.

올해를 생각했을 때 가장 무서웠던 장면 중 하나는 이태원 참사라고 생각한다. 이태원 참사가 났던 날 나 또한 강원대학교 후문에 있는 보드게임 카페에서 지인들과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형 한분이 지금 이태원 상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시체와 CPR을 하고 있는 소방관의 모습을 보게 됐다. 처음에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할로윈 이벤트를 하는 것인가를 생각했지만 자세히 봤을 때 진짜 시체인 것을 인지하고 첫 번째로

충격을 받았다. 또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보고 두 번째로 충격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SNS에서 영상을 봤는데 사람이 압사되고 있는 현장을 보여줬고 실제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위와 같이 내 주변에서 죽음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충격적인 모습을 영상으로도 보고, 죽음이 굉장히 무서웠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듯 사람은 모두가 죽고 어떤 상황에서 죽을 것인지 예측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고 피해자들에게 해야 하는 생각은 ‘그곳을 왜 가냐’, ‘저런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왜 주지’라는 말처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 가서 그곳에는 고통 받지 말고 웃으면서 있으라는 위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김○은 :

죽음이 슬프다는 것을 처음 느껴본 죽음이다. 나는 중학생 때부터 비 맞아서 날지 못하는 참새를 시작으로 10마리가 넘는 앵무새를 키웠다. 죽음이 슬프다는 건 죽은 대상에 대한 애착과 정, 그리고 추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운 시간, 정을 준 시간, 추억 등이 많은 만큼 죽음에 대한 슬픔과 힘들도 컸다. 물어도 항상 예뻐고 밥을 먹어도 예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뻐다. 그만큼 한 마리 한 마리 아끼던 아이들이었는데 내 곁을 떠나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리고 내가 왜 더 잘 해주지 못했을까, 새에 대한 지식이 더 있었더라면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도 더해졌다. 집 뒷동산에 묻어주고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갔다. 봄이 되면 묻어둔 자리에 꽃이 피어났다. 새하얀 깃털을 가진 아이였는데 꽃도 하얀 꽃이었다. 그 꽃을 보곤 그 아이를 떠올리며 눈물이 난다. 아직도 사랑하고 다시 내 곁에 돌아와 줬으면 하는 예쁜 아이들이었다. 죽음이 슬프고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었던 죽음 중 하나였다.

김○연 :

나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한 번 관계를 맺고 나면 그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기에 소중한 이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기를 희망한다.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상상만으로도 서글퍼진다. 일생에서 지인의 지인의 지인의 장례식은 가본 적이 많아도 나의 친지의 장례식은 아직 한 번밖에 겪어보지 못했다. 가까이서 죽음을 경험한 적이 한 번 밖에 없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경험할 죽음이 많다는 의미도 되기에 더더욱 소중함이 느껴진다. 내가 경험한 죽음은 외할아버지의 죽음이다. 나의 친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 한 분 뿐이기에 외할아버지는 언제나 나에게 유일무이한 존재였다. 그러나 할아버지와는 그리 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내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고 성격이 불같으셨으며 부지런하시고 아닌 척 할머니를 아끼는 츤데레라 할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가정에 충실하시지는 못했다. 나뿐만 아니라 엄마와도 친밀한 사이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에 얘기했던 외로움을 사치로 풀려했던 할머니와 비슷하게 외로움을 술을 통해 해소하려 하셨던 것 같다. 결국 할아버지는 간암으로

병실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입원하셨을 때 병문안을 갔던 기억들도 있다. 그때의 약품냄새와 슬픈 분위기는 아직까지 기억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이 설마 하는 마음이었다. 강하신 분이니 다시 돌아올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었다. 하지만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처음 해봤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묵묵히 있었던 것 같다. 오히려 대성통곡하는 할머니를 모시느라 정신이 없고 사람들을 인사하느라 힘들었던 것 같다. 그러다 장례식이 다 끝난 뒤에야 할아버지가 잘해주셨던 기억들과 함께 추억들이 생각나서 한참을 울었다. 집에 들어간 뒤에야 죽음이 실감하고 더 이상 할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무섭고 슬펐다. 또한, 나중에 되어서야 할아버지가 첫 손주인 나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말씀해주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더더욱 슬펐다. ‘할아버지가 널 많이 아껴서 배위에 올리고 토닥이면서 재우는 시간을 좋아하셨어’ 남겨진 자들은 떠난 자들의 죽음 뒤에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기에 너무나도 아픈 경험이었다.

■ 북클럽 하면서 느낀점

남○현 :

심비우스 북클럽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펼칠 수 있었던 것 같다. 때로는 나의 의견이, 아니면 친구의 의견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였고 나랑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크게 생각해본 적 없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여러 관점에서 다각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각자가 경험한 죽음들과 내가 만약 죽음을 맞이한다면,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는 죽음에 관련된 사회문제(고독사, 연명치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을 때가 가장 흥미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이유로는 내가 생각해 보지 못한 방안들을 다른 친구들이 제시해 주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없으면 읽지 않던 나여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목적을 제공해준 심비우스 북클럽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윤 :

심비우스 북클럽이라는 활동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 학기에 친구의 권유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많은 책과 자료를 접할 수 있었고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다. 죽음이 마냥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근처에 항상 같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살면서 가족들이나 신문 기사 등을 통해 가까이에서 또는 멀리에서 여러 번의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죽음은 여전히 나에게서 거리가 있는, 먼 존재로만 두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활동을 함께하는 학우들과 함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또, 각자의 경험을 나누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내가 막연히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나의 죽음을 조금이나마 준비할 수 있게 마음가짐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죽음'이라는 한 단어에도 이렇게 수많은 주제와 다양한 이야기가 담길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다. 처음 주제를 잡을 때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게 떠올라서 죽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지 의문이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죽음에 대해서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고 내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박○현 :

심비우스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책에 대한 주제를 매주 정하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이유이다. 매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지 못한 생각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살아가는 동안 죽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심층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들 죽음이란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지 않고 부정적으로 받고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다가오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하는 기회를 가진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좋은 죽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이 정리되지 않는다. 과연 좋은 죽음이 진짜 있는 것인가? 죽는 것이 사는 것에 비해 좋은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더 좋은 삶을 살아야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번 심비우스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김○은 :

죽음이 추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각자의 죽음을 얘기하며 슬펐던 감정을 나누고 그 감정이 추억으로 바뀌면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다져졌다. 죽음이 꼭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경험한 죽음도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의 죽음, 타인의 죽음, 자식의 죽음 부모의 죽음 등을 생각하면서 어떤 죽음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삶은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가기까지의 여정이지 않을까 싶다. 죽음이라는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내 간다. 자살, 혹은 타살 혹은 올바르게 살지 않은 죽음이 아닌 자연스러운 죽음, 무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 내간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간다 가야닌 살아내다. 라며 수동적인 표현이 마음을 울렸다.

김○연 :

죽음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심비우스 북클럽을 진행하면서 팀원들과 죽음에 관한 가치와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의견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즐거웠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에 책 저자의 의견 또한 알아볼 수 있었고 다양한 정보들을 얻게 되

	<p>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비슷한 의견이 나오면 공감하고 다른 의견은 사용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눈 것 같다. 또한, 서로의 생각을 나눌 때 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팀원들의 새로운 초점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나와 대립되는 의견들도 들을 수 있어 나의 생각에 문제점과 보완점, 차이점 등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이 무겁게만 느껴졌는데 사람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깊이와 죽고 싶은 방식 등 죽음을 다루는 모습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배웠고, 이를 통해 죽음을 둘러싼 부정적 감정들이 긍정적으로 희석되는 등 다양화되었다. 여러 형태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겪고 나니 죽음을 죽음,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나만의 죽음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져가는 것도 좋았는데,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서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심비우스 북클럽을 통해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사고하고 사색하고 죽음 자체를 생각해볼 수 있었던 점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p>
<p>활동사진</p>	

2022년 12월 02일

참가자대표 : 남○현

죽은 자에게 보내는 편지

김○연	
-----	--

이○윤	
김채은	

남○현	
박○현	

--	--